

이낙연 '2차 슈퍼워크' 사활 셈법 복잡

네거티브 프레임에 대장동 공세수위 고심 여야 대결국면 때 지지층 결집 효과 변수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당내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 공세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 전 대표로선 역전의 지렛대로 쓸 유일한 카드인만큼 여기에 '올인' 해도 모자라지만, '네거티브 프레임'이라는 역풍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마냥 공세를 퍼붓기엔 다소 부담스러운 형국이기에 때문이다.

곽상도 의원 등 국민의힘 인사들의 이름이 등장,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상황이 여야 대결 국면으로 본격 전환되면서 여야의 유력주자에 대한 양 진영의 지지층 결집 효과가 가속화되는 흐름도 변수다.

선두인 이 지사에 12만표 가까이 뒤지며 결선행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승부처가 될 내달 3일 '2차 슈퍼워크'에 다 걸어야 하는 이 전 대표로선 셈법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

'홈 그라운드'인 호남 경선에서 대장동 의혹 등에 힘입어 대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기대만큼의 성적표를 올리지 못한 것도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조준점을 살짝 바꾸며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이 지사를 직접 겨냥하지 않으면서, '토건 비리 세력' 전반을 조준하며 의혹 공세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그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저도 이런 저런 이야기들 듣고 있지만,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며 "대장동 의혹의 큰 그림이 코끼리라고 치면 언제일지 모르지만 전체가 그려질 것"이라고만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전 대표는 부산시의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도 대장동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촉구하며 전방위적 수사 확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 캠프 정치개혁비전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27일 라디오에서 야당의 대장동 의혹 특검 요구에 "이 지사가 관련된



다는 근거가 없어 안된다"며 방어막을 치고, 오히려 '곽상도 특검'을 촉구했다. 이낙연 캠프는 이 지사를 직접 공격하지 않아도 의혹이 커지면 결국 선거인단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수도권 민심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캠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미 지지자나 다수 국민이 분노하고 있어서 우리가 직접 이 지사를 비판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이런 분위기를 타고 2차 슈퍼워크에서 결선 교두보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고 했다.

또 다른 캠프 관계자는 통화에서 "문제점 지적을 무조건 '네거티브'라고 하는 프레임이 문제로, 지적할 건 계속 지적해야 한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처럼 악은 드러나기 마련으로, 한 방에 갈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오는 주말 부산·울산·경남지역 경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지역 민심 청취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동래구 한 음식점에서 부산시 지역업자간담회를 열고 워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이 뭐다 해서 다섯 번째 지급되고 있는데 진동제 정도"라며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뛰어넘는 손실 보상과 회복이 두 배로 들어가도록 당부하고 상의하겠다"며 "손실 보상은 이미 정부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회복을 위해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5년 동안 250조, 1년에 50조씩은 투자해야 여러분 개인인께서 실감이 더 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확진자 증가...일상회복 총력"

문 대통령 "병상확보·백신접종 속도 높일 것"

김총리 "내달 중 국민여론 듣고 로드맵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단계적 일상회복의 조기 달성을 위해서는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 증가 상황의 안정화가 관건"이라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정부가 방역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김부겸 국무총리와 의주 회동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이 같이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 "확진자 급증에 따른 의료 대응에 지장이 없도록 생활치료센터와 병상 확보 문제를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각별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 이후 많은 국민이 자발적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방역상황 조기 안정화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 감사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회동에서 백신



2차 접종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아직 550만명에 달하는 백신 미예약 국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로 추석 전 국민 70% 1차 접종 목표를 무난히 달성했다"며 "백신 물량도 충분히 확보됐다. 10월 중 국민 70% 2차 접종 목표 역시 최대한 조기에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준비하기 위해 총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여론을 듣고 10월 중 실천 로드맵을 만들 예정이다. /연합뉴스

국힘, 대장동 특검 역풍 우려 당 특위, 성남시청 항의 방문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문제의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한 장본인이라 주장하며 특검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이 지사가 이번 사건을 '국민의힘 게이트'라 지칭한 데다 이들의 회천대유 퇴직금 50억원이 드러나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 견도 있었던 만큼 민주당이 특검 법안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논리를 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전체 사업을 설계한 사람이 이 지사 본인이라고 이미 스스로 밝혔다"며 "반성은 커녕 성을 내고 있으니 역대급 뻔뻔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금까지 특검과 국정조사를 계속 회피한다면 역대급 일확천금 부패 사건의 공범으로 낙인이 찍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관이 나서서 원주민과 입주자에게 돌아갈 이익 몇 명에게 몰아줬다"며 "이처럼 기막힌 구조를 설계한 사람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특혜 구조를 몰랐다면 철저히 무능한 것이고, 그 구조를 알고도 해줬다면 비상식 부패의 공모자가



국민의힘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이현승 위원장이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을 방문, 장영근 성남시 부시장에게 판교 대장동 개발 게이트 관련 공식자료 요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된다"고 지적했다.

당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를 항의 방문하며, 이 지사의 책임론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기도 했다.

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만간 사건의 열거가 전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라

며 "곽 의원 아들 문제에 일회일비하면서 이것이 마치 전부인 양 떠드는 세력들이 궁지에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 전략기획부총장인 성일종 의원 역시 라디오에서 "곽 의원 아들 같은 경우 몸통은 따로 있고, 사실 머리털 하나 정도 되는 사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논란이 대선 정국 한가운데서 심각한 여론의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곽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자녀 관련 의혹을 앞장서 제기해온 만큼 당 전체가 내로남불의 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였다. /연합뉴스



최근 광주 동구 파레스호텔 8층에서 열린 윤공정포럼 임명장 수여식 및 국민의힘 입당원서 전달식에서 곽광희 윤공정포럼 광주전남위원회 위원장과 양혜령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공정포럼 제공

윤공정포럼 "호남 지지율 30% 목표"

임명장 수여·입당원서 전달

고광희 윤석열 국민캠프 호남 총괄 위원장은 27일 "호남지역에서 내년 대선까지 국민의 힘 당원을 입당시켜 대선에서 호남지역 국민의힘 투표율이 30% 이상 나오면 영·호남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최근 광주 동구 파레스호텔 8층에서 열린 윤공정포럼 임명장 수여식 및 국민의 힘 입당원서 전달식에 참석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윤공정포럼 공동대표와 50여 명의 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국민의 힘 입당원서와 윤공정포럼 회원 가입신청서를 전달받았다. '윤공정포럼'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

는 모임이다.

그는 "호남지역에서 국민의힘 입당원서를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모집했다"며 "대선 전까지 윤석열 지지율 30%를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다"고 말했다.

양혜령 윤석열 국민캠프 광주시 선대위 수석부위원장은 "호남에서 이제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새로운 정치세력이 필요하며, 정권교체를 위해 과감한 선택이 필수적이다"며 "윤 후보가 호남의 새로운 정치세력을 구축하고,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 중도, 더불어민주당에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함께하는 민의 힘 입당원서와 윤공정포럼 회원 가입신청서를 전달받았다. '윤공정포럼'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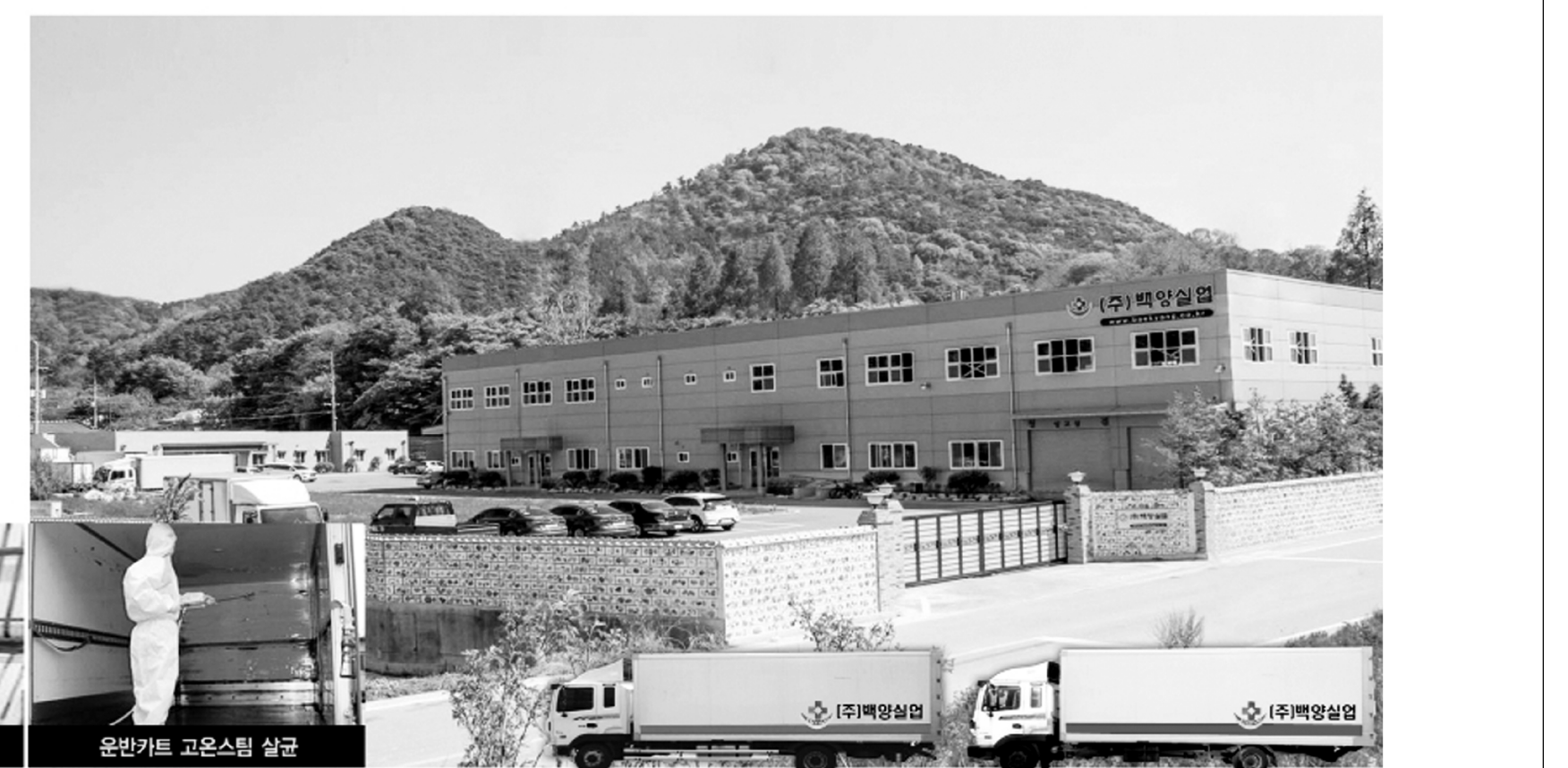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처리 기업!!]

호남 최대 최첨단 세탁시설 완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효율적인 관리로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세탁 전문 시스템을 갖추어 친환경 세탁 문화를 위해 연구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치(연속) 세탁기, 다림시설, 운반카트 고온스팀 살균



(주)백양실업,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신기길 93 T. (061)392-7900